

통사복합과 이독성과의 관계연구

이 정 숙

(전북대학교)

Lee, Jeong-Suk. 199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yntactic Complexity and Readability. *Linguistics*, 7-1, 361-378. Primarily this paper aims at describing how the rules of English language produce complex syntax and finding out what kinds of rules make English reading difficult. To study the relationships between syntactic complexity readability,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following two hypotheses: (1) How much is the understanding ability of syntax which has a strong influence reading comprehension? (2) What operations of grammar transformation make readability low or high? The testing methods are understanding ability test, memory test, and paper test. These readability research, even if there are imperfections, makes us realize in part the students' reading ability in syntactic complexity and their problems in grammar transform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1.1 연구목적

이독성(Readability)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단어, 문법, 문장구조, 문체, 독서내용, 학습자의 선행지식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구조상에 나타나는 문법변형의 조작과정 중 어떤 요인들이 이독성을 높게 또는 낮게 하여 문장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지를 규명하여 통사복합(Syntactic complexity)과 이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이독성 연구에서는 어휘나 문장길이에 의한 이독성을 측정해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사구조에 의한 이독성을 언어학적 측면과 심리언어학적 측면

에서 살펴봄으로서 교사의 측면에서는 교재의 선택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이독성과 상관도가 높은 문장구조를 좀 더 자세히 학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는 문법규칙과 통사구조(syntactic structure)사이의 관계를 통해 통사구조가 이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단어의 곤란도보다는 문장의 구조의 복잡성이 이독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심리언어학적 측면에서는 통사의 중요성을 입증한 4가지 실험연구, EVS실험, Click실험, Miscue 분석, Short-term memory 등을 통해 독해 능력에 있어서 통사구조의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문장의 길이와 통사복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통사복합의 이해력은 문장 독해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고, 문법변형의 여러 가지 조작과정은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통사복합에 대한 이해력이 문장이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떤 문법변형이 이독성을 높게 하고 또 낮게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독성의 변수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실험대상은 먼저 통사구조에 대한 이해력 측정을 위해서 전주시내 인문고교 1학년 학생 중 상위그룹에 속하는 남학생 25명과 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문법변형에 의한 이독성 측정을 위해서는 하위그룹 남학생 25명과 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25명씩으로 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측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평준화 관계로 학교와 학급이 골고루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적순위에 의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만 보아도 평균 50%이내 정도의 학생들의 영어 독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제2장에서는 이독성의 개념과 요인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문장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길이에 의한 요인분석의 난점과 통사구조에 의한 요인분석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가설에 입각한 이독성 측정의 결과 중 어떠한 문법변형이 문장의 이해력과 이독성을 높게 또는 낮게 했는지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독성 측정의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결론과 그 의의를 제시한다.

제2장 이독성의 개념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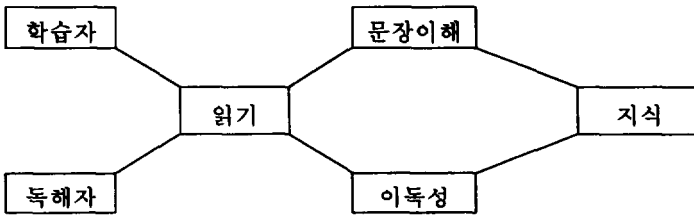
2.1 문장이해와 이독성

Hury(1968:79)는 문장이해를 어휘의 차원을 넘어 보다 큰 차원인 문장단위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Comprehension has to be in terms of sentence units, Smaller units could be considered but these could not be apprehended as independent units of meaning, but rather as parts of a greater whole.

문장이해란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 이상이며 그 문장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작용이 개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각적인 문자상의 지식, 논리적 추리, 의미상의 기억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문장이해란 지식전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을 문자로 기호화한 것을 지식수신자가 해독하여 그 지식을 전달받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이해가 잘 되었느냐의 여부는 전달받는 자의 기대지식(어휘력+구문력)이 전달하는 자의 기대지식과 근접해 있으면 문장이해가 쉽게 이루어지고, 반면에 이 양자의 두 지식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문장이해는 그 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장이해와 이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장이해는 학습자의 측면에서 보는 속성이고 이독성은 학습자료의 측면에서 보는 다른 하나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이해와 이독성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독성은 지식 습득을 위한 문장이해도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게 된다.¹⁾ 이 두 관계를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Readability와 comprehensibility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comprehensibility는 음성언어의 이해와 문자언어의 이해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여 Readability는 문자언어의 이해를 의미한다. (cf. 이홍수, 1983,1984)



<표 1> 문장이해와 이독성(조석주,1985:94)

문장이해와 관련한 이독성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a) To indicate ease of understanding of comprehension due to the style of writing (Klare,1963)
- b) The readability of a sentence can recover the meaning of the sentence (Park,1977)
- c) By readability we are referring to those aspects of a text which make it easy for a reader to understand (Harris,1980)

2.2. 이독성 요인

이독성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그 문장을 다루는 학습자의 학습의욕 및 학습동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된다.²⁾

다음의 이독성에 대한 정의는 이독성의 요인을 시사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Readability is a function of many variables. Among them are such factors as content, style, motivation, and background of the reader, vocabulary and syntax.(Kaiser-Neils-Floriani,1975)

2) 학습동기와 readability와의 관계에 관하여 Fries(1975:251)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High motivation overcomes high readability level but low motivation demands a low readability level.

그렇지만 무형요소인 문장의 의미와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설명할 수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극히 어렵고 학습자의 배경지식도 학습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또한 불가능하다. 반면에 유형요소인 문장의 어휘와 구문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은 가능하다. 따라서 문장을 좀 더 읽기 쉽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휘와 어느 형식의 구문으로 기술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문장요소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장길이 요인과 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통사구조 요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2.1 문장길이

문장구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짧으면 읽기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복합문보다는 단문이 더 쉽게 느껴진다. 대체로 난해한 문장은 평이한 문장보다 문장길이 길기 때문에 문장 곤란도와 문장길이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cf.Bormuch,1969:291-299) Holland(1930:668-669)는 문장길이와 구문상의 복합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It has been found that the effect of length and structure differ with different patterns of sentences, with different individuals, and with different groups of subjects; but length of sentences remains one of the basic factors in determining readability.(Holland, 1936:668-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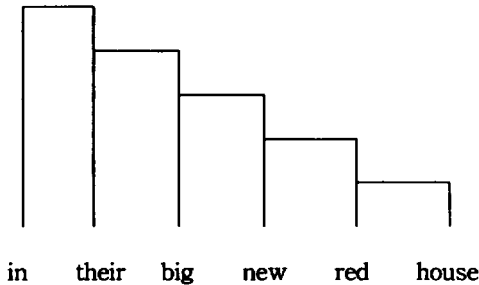
Klare(1963:163-171)도 인간 능력의 한계점을 들어 문장이해는 문장길이 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Flesh(1946:21-22)도 문장길이를 Readability요인으로 보는 근거를 인간의 기억능력에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Yngve(1961:364)의 문장심도측정(Sentence Depth Measure)을 통해, 문장길이 요인에 의한 통사복합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 Yngve은 이분지형(binary tree)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받아들이면서 문장 생성자가 필요로 하는 일시적인 문장 저장능력은 왼쪽 분지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즉, 왼쪽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어휘가 저장되고, 저장되어지는 많은 어휘들이 바로 문장 심도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두 문장을 통해 왼쪽 분지형의 형태와 오른쪽 분지형의 형태를 분석할 수 있다.

(1a) John who lives next door to us leaves Mary.(왼쪽 분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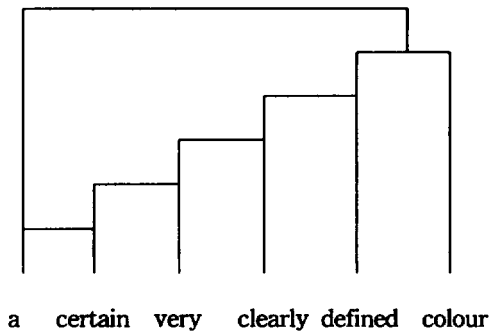
(1b) Mary loves John who supported the woman.(오른쪽 분지형)

Yngve의 모형에 의하면 위의 예문처럼 왼쪽 분지형 문장이 오른쪽 분지형 문장보다 더 많은 기억의 폭을 필요로 하고 단어의 깊이를 더 많이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문장이해의 이독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다음 예문 (2a) (2b)에서처럼 독자는 오른쪽 구 보다는 왼쪽 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a) 왼쪽분지형(left-branching)



(2b) 오른쪽분지형



하지만 통사복합만 문장구조의 심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독성에 관해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Yngve의 심도분석

은 문장 생성자의 저장요구(Storage requirement)를 지적하지만 독자는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독성을 논할 때는 해석의 문제와 생성의 문제가 반작용하게 된다.

2.2.2 통사구조

대부분의 이독성 분석에서는 단어길이를 문장 난이도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문장길이만으로는 문장의 통사적 복합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Shakespeare의 "To be or no to be: that is the question"은 문장의 길이 면에서나 어휘의 빈도 면에서 이독성 수치가 높게(즉, 쉬운 것으로) 측정되었지만 그 뜻은 결코 쉽지가 않다. 또한, 다음 예문(3)에서 볼 때, 문장의 난이도가 문장길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야기된다.

(3) a. Mary studies French, and studies Korean, too.(8words)

b. Mary, who studies French, studies Korean, too.(7words)

위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근본적으로 의미는 같지만, 직관적으로 길이 면에서는 (3b)가 (3a)보다 짧고 난이도 면에서는 (3a)가 (3b)보다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장길이에 의한 이독성 측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고 있으며 또한 이독성을 통사구조 분석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통사구조를 이독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기 시작한 분석 연구 가운데 통사구문에 관한 분석 방법의 일부를 Coleman(1965: 166-17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a. The chairs were taken by the boys.(Passive)

b. The boys took the chair.(Active)

(5) a. The pay-slips were not printed by the computer.(Passive)

b. The computer did not printed the pay-slips.(Active)

(6) a. The boat I bought was green.

b. The boat which I bought was green.

위의 예(4)에서 알 수 있듯이 능동과 수동의 동사를 보면, 능동의 동사가 수동의 동사보다 읽기에 더 쉽고 능동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었을 때 잘

못 이해되는 경우가 적다. 동사화된 명사와 능동의 동사를 보면, 능동의 동사가 동사화된 추상명사보다 이해하기가 더 쉽고 상기하기가 더 쉽다. 범조동사 might, could, should 와 같은 경우, 능숙하지 못한 독자는 이해하기 어렵고, 숙련된 독자도 문장의 상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문장 안에 있는 절의 경우를 보면, 한 문장 안에 더 많은 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문장은 이해의 어려움을 준다. 이해와 대치의 경우를 보면, 문장의 길이가 항상 문장의 이해와 적극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치는 문장의 길이는 감축시키지만 이해는 더 어렵게 만든다. 통사구조 요인에 의한 문장구조의 분석은 통사복합의 파생이론(DTC: Derivational Theory of complexity)을 통해서도 알아 볼 수 있다.(cf.Forder & Garrett,1976)³⁾

통사복합의 파생이론은 심층구조인 핵문에 문법변형이 적용된 복합성으로 이독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가 표면구조 형태를 심층구조 형태로 분석하거나 분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표면구조에서 심층구조로 변형시키고자 할 때 변형 규칙이 많이 적용된 문장일수록 그 문장은 그 만큼 더 복잡해지며 이해가 어렵게 된다.

파생이론에 의한 문장의 이독성에 관한 많은 연구 가운데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핵문인 서술문을 수동문이나 부정문, 의문문 형태로 변형시킬 때 학습자는 어려움을 가진다는 점들이다(cf.Miller,1960,1962). 이 연구는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다루어 내는데 걸린 시간과 핵문으로부터 다른 문장으로 변형할 때 적용된 변형규칙의 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실험 결과는 핵문을 부정문으로 전환시키는데 1.1초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부정문을 수동문으로 전환시키는데는 3.5초가 걸렸으며 그 외 다른 변형규칙들이 위의 두 극단의 경우 중간에 각각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수동문을 수동부정문으로(1.2초)으로 핵문을 수동문으로(1.5초) 수동부정문을 부정문으로(1.8초) 그리고 핵문을 수동부정문으로 전환하는데는 2.7초의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파생이론의 정당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파생이론의 결론은 생성문법이 문장을 인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문장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법적 변형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는 의미에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와는 독립적으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변형규칙들 상호간에 서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그 데이터와

3) DTC라는 명칭은 Fordor & Garrett에 의한 것이다.

정보가 저장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문장의 복잡성은 적용된 변형규칙의 수로써 정의되며 이를 그 문장의 인식에 부과되는 심리적 복잡성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본다(cf. 박병주, 1973:90-91) 그러나 파생이론에 관한 심리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커다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장의 형태적 변형만을 기준으로 이독성을 측정하려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문장지각의 복잡성에 관한 실험(Holmes & Forsta, 1972:148-156)에서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보문 관계의 문장(Complement sentences)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문장(One-clause sentences)보다 문장지각에 있어서 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예문을 보면,

(7) a. Alan left a large pile of books in the library.

b. Bill wanted his father to leave on the last bus.

라는 두 문장에서 (a)는 단순동사 leave가 사용된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며 (b)는 두 개의 심층구조로 이루어진 보문 관계의 문장이다. 여기에서 문장(a)의 지각이(b)보다 더 어려웠다는 주장이나 이것은 두 개의 심층구조를 가진 문장이 언제나 하나의 심층구조인 문장보다 더 어렵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제 3 장 결과 분석 및 논의

앞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장 구조상에 나타나는 통사복합의 이해력과 변형문법의 이해력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다음 두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1: 문장 구조상에 나타나는 통사복합의 이해력은 문장 독해의 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문법변형의 여러 가지 조작과정은 이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사구나 동사구의 확장문, 내포문, 축약문의 이해를 구분하여 실험하며, 가설 2를 설정하기 위해 여러 변형규칙의 적용-재정리, 첨가, 생략, 대치-를 토대로 한다. 위의 가설로부터 나온 측정 결과는 통사복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급학년의 영어독해에 문제가 되는가를 규명할 수 있고 중급학년의 문법변형 중 어떤 변형이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져 영어독해에 어려움을 주는지를 규명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결과로부터 얻은 참고자료는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통사구조의 세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력, 통사구조의 여덟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력, 변형규칙이 적용되는 문장의 이해력을 암기력 시험과 설문지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3.1 통사구조의 이해력

이 시험은 10문제 출제하여 남 여 고등학교 1학년 상위그룹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각 문항에 대해 맞춘 정답자 수를 가지고 분석의 결과표를 1부터 3까지 제시한다.

<표1> 통사구조의 3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력

유 형	합 계	평 균	편 차
명사구 확장문	249	12.45	4.22
내 포 문	209	10.45	5.31
축 약 문	159	7.95	5.13

<표2> 통사구조의 3가지 유형에 대한 성별 이해력

유형	성별	합계	평균	편차
확장문	여	112	11.20	3.25
	남	137	13.70	4.85
내포문	여	92	9.20	3.96
	남	117	11.70	6.36
축약문	여	77	7.70	5.31
	남	82	8.20	5.22

<표3> 통사구조의 8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력

내용	합계	평균	편차
명사구	141	14.10	3.315
동사구	108	10.80	4.54
보문	115	11.05	5.75
관계문	59	13.75	2.98
분사구	39	6.50	3.56
분사구	73	7.30	5.10
관계문	68	11.33	3.38
접속문	18	4.50	5.46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사구조에 대한 이해력은 축약의 경우가 가장 낮았고 명사구, 동사구, 확장문의 경우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통사구조의 이해력은 확장문, 내포문, 축약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사구조에 대한 전체 이해력은 41.13%로서 문장독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사복합은 독해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 여 성별의 이해력은 각 유형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해력이 약간 높다. 즉, 남학생의 영어독해능력이 여학생의 경우보다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통사구조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측정된 결과 내용과 이해력의 결과는 확장

문의 명사구 이해력이 가장 높았고 축약의 접속문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낮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사복합이 문장독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문법변형에 의한 이득성

이 시험은 1학년 고등학생 중 하위그룹에 속한 남·여 각각 25명을 대상으로 30문항을 출제해서 4가지 문법조작과, 3가지 시험방법, 그리고 3가지 형태로 변형규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표4> 3가지 시험방법에 의한 4가지 유형에 대한 남·여 이득성

(각 30문항 중 정답(750점)을 맞춘 합계)

1) 이해력시험

유 형	합 계	평 균	편 차
재 배 열	247	8.23	5.46
첨 가	249	8.30	4.12
삭 제	332	11.06	5.88
대 치	272	9.06	4.91

2) 암기력시험

유 형	합 계	평 균	편 차
재 배 열	352	11.73	5.14
첨 가	184	6.13	4.85
삭 제	276	9.20	5.70
대 치	222	7.40	4.83

3) 설문지 시험

유 형	합 계	평 균	편 차
재 배 열	381	12.70	7.77
첨 가	317	10.56	5.63
삭 제	356	11.86	6.07
대 치	337	11.23	6.21

<표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해력 시험에서는 첨가과정이 이해력이 가장 낮고 재배열 과정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암기력 시험에서는 재배열 과정이 가장 낮게, 삭제 과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설문지 조사에서는 첨가과정이 가장 낮게, 재배열과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로 첨가, 대치, 삭제, 재배열의 순으로 이득성이 높아감을 알 수 있다.

<표5> 3가지 시험방법에 의한 각 유형의 성별 이득성

(30문항 중의 평균).

1) 재배열

성 별	방 법	평 균*	편 차
여	암 기	10.46	4.051
남		13.00	5.916
여	이 해	8.60	5.717
남		7.86	5.383
여	설 문	11.86	8.061
남		13.53	7.171

2) 첨가

성 별	방 법	평 균*	편 차
여	암 기	8.06	4.13
남		8.53	4.25
여	이 해	6.13	4.27
남		6.13	5.52
여	설 문	9.86	5.54
남		11.26	5.82

3) 삭제

성 별	방 법	평 균*	편 차
여	암 기	12.00	6.57
남		10.13	5.16
여	이 해	8.66	5.61
남		9.73	5.93
여	설 문	10.40	5.96
남		13.33	6.03

4) 대치

성 별	방 법	평 균	편 차
여	암 기	9.93	4.99
남		8.20	4.84
여	이 해	8.00	5.35
남		6.80	4.36
여	설 문	10.13	6.05
남		12.33	6.38

<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배열 과정은 이해력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암기력과 설문지는 남학생이 높았다. 첨가과정은 암기력은 여학생이 높았고, 이해 설문은 남학생이 높았다. 삭제과정은 암기력

은 여학생이 높았고 설문은 남학생이 높았다. 대치과정은 암기 이해력에 있어 여학생이 높았고 설문지에서는 남학생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시험방법에 대한 남·여의 이독성의 이해력은 대부분 여학생 경우와 남학생의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3가지 문법변형의 수(number)에 대한 유형별 이독성

재배열	암 기		이 해		설 문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a	13.00	3.71	10.20	4.77	15.00	7.33
b	12.00	4.96	8.40	6.61	12.70	8.17
c	10.20	6.51	6.10	4.50	10.40	7.90

첨 가	암 기		이 해		설 문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a	8.90	3.84	8.30	3.97	13.30	4.64
b	6.00	5.65	8.80	3.52	10.30	5.45
c	3.50	3.59	7.80	5.11	8.10	5.97

삭 제	암 기		이 해		설 문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a	11.90	6.53	9.40	6.25	12.00	6.65
b	10.70	4.39	9.60	5.68	13.30	6.16
c	10.60	6.96	8.60	5.73	10.40	7.905.69

대 치	암 기		이 해		설 문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평 균	편 차
a	12.50	4.60	11.00	2.66	15.30	4.29
b	8.40	4.00	7.30	5.18	9.70	6.49
c	6.30	4.29	3.90	3.66	8.70	5.98

(남·여 합한 30문항 중 평균임)

<표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a), b), c) 변형과정 중 변형을 거치지 않은 a)의 기본 문형이 가장 쉽게 나타났고 변형을 더 많이 거친 c)문항이 모두 어렵게 나타나 변형이 많이 가해질수록 그 문장은 더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법변형에 의한 통사복합은 이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제 4 장 결 론

영어독서에 있어 쉽고 어려운 정도를 결정해 주는 통사복합과 이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문장 이해의 저해 요인을 규명해 내고자 심리학적 측면과 언어학적 측면에서 통사복합을 분석하고 통사구조에 의한 이독성 연구의 필요성의 결과를 실험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독성 연구를 위한 일반적 개념을 통해 이독성의 의미와 요인 그리고 이독성 측정을 위한 요인을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의 모색으로 이미 제시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여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가설 1)에서 제시한 문장구조상에 나타나는 통사복합의 이해력과 문장독해의 이해력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설 2)에서 제시한 문법변형의 조작과정도 역시 이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영어독서에 있어서 문법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며 문법의 이해를 통해서만이 보다 복잡한 단락의 의미까지도 이해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어의 문장구조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문법의 규칙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작용하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 분석의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장독해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일부분이나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측면에서는 교재분석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독서자료의 선택은 물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그리고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이독성과 상관도가 높은 문장구조를 좀 더 자세히 학습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독서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박남식. 1977. “근접도와 난해도: Congtiguity as a Comprehensibility Variables” 언어, 제2권 제2호, 한국어학회.
- 박병주. 1973. “문장 복잡성과 문법적 변형” 영어영문학, 한국영어영문학회, 48.
- 이홍수. 1983. “문장의 이독성에 대한 측정모형”, 영어영문학, 제31집 제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 _____. 1984. 영어독서에 있어서의 이독성 연구-EFL/ESL 독서의 난이성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신문화사, 서울.
- 조석주. 1980. 영어 Readability의 측정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신 문화사, 서울.
- _____. 1982. “영어 Readability 공식의 개관”, 영어영문학, 제29권 제2호, 한국영어영문학회.
- _____. 1985. “Readability와 Syntactic Complexity”, 어학연구, 제18권, 제2집,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Bormuth, J. R. 1969. “Cloze Test Readability,” Criterion Reference Score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Vol.3
- Coleman, E. B. 1965. “Learning of Prose Written in Four Grammatical Transform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9.
- Flesh, R. F. 1946. “How to say what you Mean,” Science Digest, 20.
- Fordor, I. A.& Thoman, B. G. 1976.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Linguistic Segment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4.
- Harris, A. J. & Sipay, E. R. 1980. *How to Increase Reading Ability*, Longman.
- Holmes, V. M.& Forster, K. I. 1972. “Detection of Extraneous Signals

During Sentence Recognition,"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7. 297-301

Hury, E. B. 1968. *The Psychology and Pedagogy of Reading*, Cambridge, Mass : M. I. T.

Klare, G. R. 1963. *The Measurement of Readability*, Iowa state University Press.

Miller, G. A. 1960. "How Language is a Sentence?". Proceedings of the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Bonn, 543-545.

Miller, G. A. 1962. "Some Psychological Studies of Grammar," American Psychologist, 17, Reprinted in Jakobovits and Miron.

Park, N.S. 1977. *Variables in Sentential Readabil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EFL/ESL for Korean Learn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Yngve, V. H. 1960. "A Model and an Hypothesis for Language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5, 444-446.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Fax: +82-652-270-3201